

조사보고서

2021-4

2021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분석결과

2021. 10



I. 조사의 개요

1. 조사목적

- ◆ 여수지역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을 조사·분석하여 역내 기업의 경영 활동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정부 및 시·도지자체의 경기 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데 있음.

2. 조사기간, 조사방법

- ◆ 2021년 3/4분기(7, 8, 9월) : 실적기간
- ◆ 2021년 4/4분기(10, 11, 12월) : 전망기간
- ◆ 조사기간 : 2021. 8. 30. ~ 2021. 9. 10. (휴일제외 10일)
-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3. 조사대상

- ◆ 여수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종업원 15인 이상의 제조업체 186개사
- ◆ 응답개수 : 75개 (설문지 회수율 : 40.3%)

4. 조사내용

- ◆ 전반적인 체감경기(경기실적 및 전망)
- ◆ 경기 변화에 따른 기업 부담과 대책 상황 등

5. 집계·분석

- ◆ 회수된 조사표를 각 항목별로 집계·처리

6. 기업경기 실사지수(BSI)의 작성방법

- ◆ 경기조사 및 항목별 평가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기간의 실적과 예측을 각각 전 분기 및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호전(상승, 증가), 악화(하락, 감소)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 하였음.

기업 경기 실사지수(BSI)는 다음 산식에 의해서 작성하였음.

$$\text{기업경기실사지수(BSI)} = \frac{\text{증가(+)}\text{표시업체 수} - \text{감소(-)}\text{표시업체 수}}{\text{총 유효 응답 업체 수}} \times 100 + 100$$

※ BSI = Business Survey Index (0 ≤ BSI ≤ 200)

- ◆ 따라서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 100을 초과할 때는 호전(상승, 증가)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하락, 감소)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 100 미만일 때는 그 반대를 나타냄.

II. 2021년 4/4분기 기업경기 전망

1. 종합전망

가. 개황

- ◆ 여수지역에 소재한 186개 제조업체를 대상(설문지 회수 : 75개, 회수율 : 40.3%)으로 2021년도 4/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89.3’로 조사되었음.
- ◆ 이중, 석유화학 연관업종(n=43개)만을 대상으로 한 경기전망지수(BSI)는 ‘100.0’임

나. 항목별 경기전망 지수

【종합 (N =75)】

구 분	항 목	전체	
		2021년 3/4분기 실적 (전 분기 대비)	2021년 4/4분기 전망 (전 분기 대비)
	체감 경기	90.7	89.3
	매출액	89.3	88.0
	영업이익	81.3	86.7
	설비투자	80.0	92.0
	자금조달여건	84.0	89.3

【석유화학 연관업종(N=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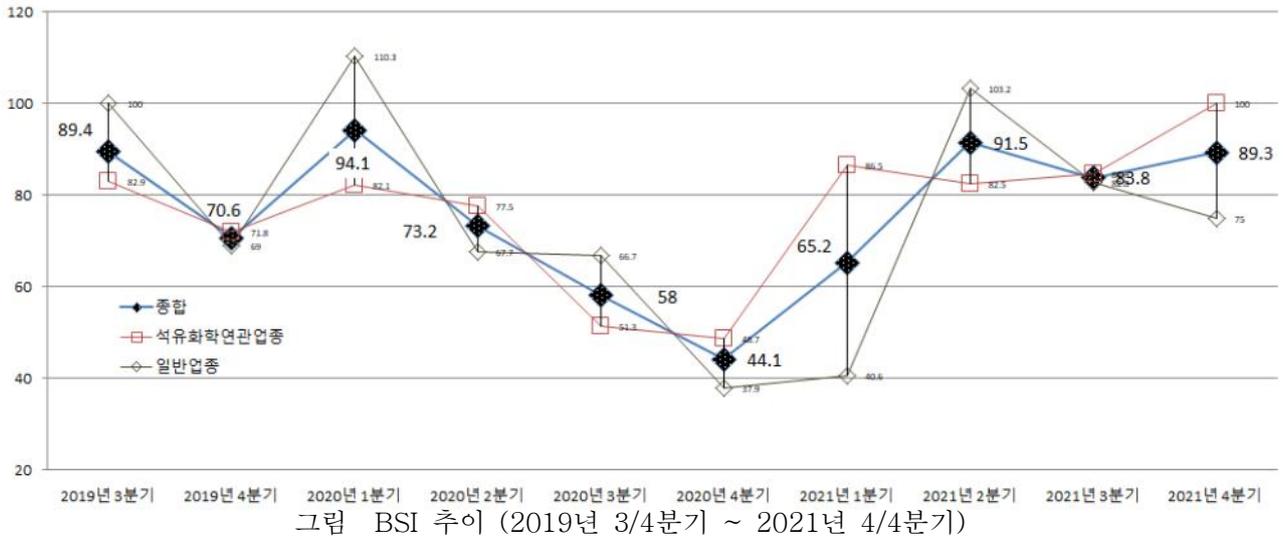
구 분	항 목	전체	
		2021년 3/4분기 실적 (전 분기 대비)	2021년 4/4분기 전망 (전 분기 대비)
	체감 경기	102.3	100.0
	매 출 액	102.3	95.3
	영업이익	93.0	93.0
	설비투자	86.0	100.0
	자금조달여건	102.3	107.0

【일반업종(N=32)】

구 분	항 목	전체	
		2021년 3/4분기 실적 (전 분기 대비)	2021년 4/4분기 전망 (전 분기 대비)
	체감 경기	75.0	75.0
	매 출 액	71.9	78.1
	영업이익	65.6	78.1
	설비투자	71.9	81.3
	자금조달여건	59.4	65.6

2. 설문 결과 분석

- ◆ 2021년 4/4분기의 여수지역 경기전망지수(BSI, n=75)는 ‘89.3’ 로 조사되었다. 응답 개수 : 75개 (설문지 회수율 : 40.3%)
- ◆ 이는 기업경기 체감지수 기준 값(前분기 대비 다음분기의 기업경기 체감이 동일함을 의미하는 기준 값)인 100보다는 작은 값으로 “부정적” 인 결과다.
- ◆ 2021년 4/4분기 조사결과는 전 분기 체감경기 지수와 비교하였을 때 소폭 상승한 수치다.
 - 89.4(2019년 3/4분기)⇒ 70.6(2019년 4/4분기)⇒ 94.1(2020년 1/4분기)⇒ 73.2(2020년 2/4분기)⇒ 58.0(2020년 3/4분기)⇒ 44.1(2020년 4/4분기)⇒ 65.2(2021년 1/4분기)⇒ 91.5(2021년 2/4분기)⇒ 83.8(2021년 3/4분기)⇒ **89.3(2021년 4/4분기)**



- ◆ 조사결과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원활히 진행되고 향후 워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어져 2021년 2분기를 기점으로 90 내외의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보합)

※ 91.5(2021.2분기) ➔ 83.8(2021.3분기) ➔ 89.3(2021.4분기)

- ◆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연관업종은 지난 분기대비 15.4 상승하여 2019년 2/4분기 이후 처음으로 부정적 수치에서 벗어난 반면, 일반제조 업종은 지난 분기보다 7.8 하락한 부정적 수치를 나타냈다.

- 석유화학 연관업종 : 84.6(3/4분기) ⇔ 100.0(4/4분기) : 상승
- 일반제조 업종 : 82.8(3/4분기) ⇔ 75.0(4/4분기) : 하락

- ◆ 이번 조사 결과의 특징 중 하나는 업종별로 상반된 변화추이(전분기 대비)를 나타냈다는 것이다.(전망 역전 현상)

- ◆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제조 업종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방역 부문에서도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만 부채질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정부의 워드 코로나로 가는 쟁결음에 대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4/4분기 경기전망이 지난 분기(3/4, 82.8)보다 7.8 하락한 부정적

결과로 조사되었다고 분석했다.

- ◆ 반면, 정유사 및 석유화학기업은 지난 분기에 이어 금번 분기에도 수요 회복세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 ◆ 정유사의 경우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원유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유가가 회복되어 정제마진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4/4분기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해석이다.
- ◆ 석유화학기업의 경우에도 지난 분기에 이어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제품 스프레드(판매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차이)가 하락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으나 코로나19 관련 제품군의 수요와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건설, 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중국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로 중국의 석탄가격이 급등하면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지난 분기(3/4, 84.6)대비 15.6 상승한 긍정적 결과로 조사되었다고 분석했다.
- ◆ 특히 세계수요 여건은 주요국의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져 수요산업 업황이 개선되어 화학제품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글로벌 화학 시장 내 수요 확대로 수출량과 수출단가가 모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 이번 체감경기조사는 석유화학 연관업종과 일반제조 업종 간 경기전망지수의 변화 추이가 상반되었다는 점과 2019년 2/4분기 이후 처음으로 석유화학 연관업종의 경기전망지수가 부정적 수치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 ◆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정유사 및 석유화학기업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잔재하고 있는 불안정한 글로벌 수요와 금리 인상기조, 내수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어 여전히 긍정적인 경기전망지수는 보이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경기전망조사 세부 항목 조사결과】

- ◆ 「귀사는 2021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라는 질문에 “0 ~ 3.5%(24.0%)” > “3.5 ~ 4.0%(49.3%)” > “4.0 ~ 4.5% (26.7%)” 로 조사되었다.
- ◆ 「귀사의 금년 실적(영업이익)이 올해 초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목표치 달성·근접(49.3%)” > “목표치 미달(38.7%)” > “목표치 초과달성(12.0%)” 순으로 조사되었다.
- ◆ 「귀사의 금년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는?»의 질문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39.8%)” > “환율·원자재가 변동성(30.8%)” > “금리 인상기조(12.8%)” > “대출기한 만료 등 자금조달 여건악화(7.5%)” > “기타(5.3%)” > “미중 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2.3%)” > “본격적인 대선정국으로 인한 경제이슈 소멸(1.5%)” 순으로 조사되었다.
- ◆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귀사에서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재택근무제, 비대면 회의 등 업무환경 변화(37.7%)” > “변화없음(17.9%)” > “경제적 가치 창출 뿐 아니라 ESG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더 많은 관심(17.0%)” > “온라인 거래와 비대면 유통채널 확대(16.0%)” > “스마트 공장, AI·무인화 등 제조공정의 디지털 혁신기술 도입(5.7%)” = “기타(5.7%)” 순으로 조사되었다.